

市교육청 공사·입찰·인사 행정사무조사

광주시의회, 무더기 자료 요구 '빈축'

A4 용지 100만장 추산... 인력·예산 낭비 많아

광주시의회가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해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자료 제출 마감일인 지난 20일 1t 트럭 2대를 동원, A4 용지 상자 192개 분량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3~4년치 학교별 결산서를 비롯한 공사...

이가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100만 장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조사위원 1인당 10만 장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물량인 셈이다. 연례행사인 국회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비교해도 이처럼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출 양이 많을 경우 CD 등으로 제출하도록 한 국정감사 등과도 비교된다.

교육이 학교별 결산서 등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 있음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력,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설계도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조사위원과 위촉위원 수에 맞춰 12부씩 제출하도록 했다.

또 상당수 자료는 개별 의원들이 전에 요구했던 자료로 중복 요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공무원들은 보름 남짓 야근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시 교육청 노조는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종일값만 800여만 원 가량이 들고, 공무원 야근수당까지 합하면 1억 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의회 안팎에서도 모든 자료를 위원 수에 맞춰 제출하고 문제 학교나 의심 분야가 아닌 무차별 요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상호 체크 등을 위해 12부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실자료도 있어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광주교육계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조사한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 말까지 65일간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권일·윤영기기자 cki@kwangju.co.kr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21일 중국 공안의 통제 속에 창춘 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 과시·후계체제 구축 포석

■ 방중 김정일 '무속박' 사흘간 강행군 무단장 김일성 향일 유적지 찾아 '창춘서 정상회담' 예상 빚나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빠른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고 있다.

20일 새벽 투먼을 통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유적지 방문, 산업현장 시찰, 야간이동 등 험난한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일 새벽 투먼(圖門)을 통해 중국에 방문 한 뒤 당일 오전 9시(현지시간) 무단장(牧丹江)에 멈췄다.

그는 이곳에서 동북항일연군 기념탑이 있는 베이산(北山) 공원을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 징보후(鏡泊湖·경박호)를 방문했다.

이후 숙소인 무단장 힐리메인 호텔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뒤 김정일은 당일 오후 8시에 특별열차를 타고 하얼빈(哈爾濱) 방향으로 향했다.

하얼빈에서 내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정일 일행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창춘(長春)으로 갔다. 창춘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20분으로 약 12시간의 야간 기차여행을 한 것이다.

창춘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승용차로 같이 타고서 창춘의 대표적 산업시설인 이차 자동차 공장을 둘러봤다.

공장 시찰을 마친 김 위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숙소인 난후(南湖) 호텔로 들어갔으며 이곳에서 쉬며 북중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호텔을 나서 오후 2시 20분께 창춘역을 출발했다.

창춘을 떠난 특별열차는 그날 오후 7시에 선양(瀋陽)을 무정차 통과해 22일 오후에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꼬박 24시간 이상을 열차에서 보낸 셈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처럼 기차에서 밤을 보내며 사흘간 무속박 이동을 계속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 지역을 보다 폭넓게 돌아보며 변화상을 직접 체험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건강이 호전됐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련된 불확실성중 일부를 해소하는 한편 북한 내부의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예초 김정일 위원장이 북중 국경도시중 동쪽 끝부분에 가까운 투먼을 통해 방중하자 중국 동북 지방의 주요 경제 거점과 혁명 유적지를 둘러 본 뒤 창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이동하며 중국 동북 지역을 지나쳐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양저우에 이어 상하이로 방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상하이 이후엔 다시 북상할 가능성과 남행을 계속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재난 관리협력 강화

한중일 선언문 채택... "北 남북대화 적극 자세 제시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2일 제4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위기 등을 감안,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도쿄 게이오칸(迎賓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3국 협력이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부속문서는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 3가지다.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전문가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협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의 무리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6자회담의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3국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있어 3국 정상은 당초 내년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 앞당겨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3국 투자협정 협상도 연내에 끝내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설치될 3국 협력사무국의 사무총장(2년 임기)으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대사를 내정했다.

/연합뉴스

"신문은 느리지만 시골길 같은 존재"

언론진흥재단 '신문읽기의 즐거움' 펴내

"한 청년이 이정표를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가듯, 고속도로, 일방통행길, 한적한 시골길 중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일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1 신문술대회'에서 대일고등학교 3학년 오동현군이 "길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언론 매체다."

고속도로는 정보의 양은 많지만 혼란을 주는 인터넷, 일방통행길은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없는 TV에 각각 비유했으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골길은 속도는 느리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과 닮았다는 것이 오군의 설명이다. 오군의 이 글은 1438명이 참가한 논술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2일 오후 서울신문술대회의 수상자를 묶은 '신문읽기의 즐거움'을 책으로 펴냈다. 책에 실린 글은 대상작인 오군의 논술을 비롯해 각 부문별(중등, 고등, 대학·일반부) 금·은·동·장려상을 받은 논술 등 모두 77편이다.

/연합뉴스

"KTX 호남선 좌석수 주당 1만석 줄어"

권선택 의원 밝혀

코레일이 사전 예고 없이 KTX 호남선 좌석 수를 주당 1만석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2일 "코레일이 지난 1일부터 열차 편성 및 운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변경해 KTX 호남선의 주당 공급좌석을 기존 22만4832석에서 21만4078석으로 1만754석 줄였다"고 밝혔다.

반면 경부선과 경전선의 주당 공급

좌석은 1만8322석 증가했다. 이는 프랑스 제품에 비해 좌석 수가 적은 한국형 고속열차인 KTX-산천을 호남선에 주로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코레일은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열차 운행계획을 변경했으며 오는 9월 전라선 KTX가 개통되면 호남선 좌석 수가 더 줄어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이용객들을 무시한 철도공사의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Forest is our future' (숲은 우리의 미래) by the Seobu Regional Forest Service. It features a lush green forest scene and text promoting forest conservation and recreation. Contact information for Yeongam and Suncheon National Forest Service Offices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Baekdu Mountain (백두산악) outdoor gear. It features a hiker with a backpack and lists various brands like NORDISK, MOUNTAIN EQUIPMENT, LEKI, OSPREY, TAYLOR, mello's w, Lowe alpine, sprayway, ARCTERYX, snow peak, KOVEA, Rab, CARO, Mystery Wolf, SUUNTO, PETZL, DANA, CAMPLINE, VADKIN, ASOLO, COOG, and adidas. It also includes a list of discount points and contact numbers.